

전주교 전주교구 주보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화 85-0041~3
FAX (0652) 85-0119

숲 정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강 루

소 리

숨가쁜 경주

이 병호신부/광주가톨릭대학

삶은 고달프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가히 전쟁이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사람들의 삶이 제일 잘 집약된 시장(市場)을 전장(戰場)에 비유하였다. 사람의 삶에서 이런 냉엄한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되는 동안은 칠들기 전의 몇년 동안이 고작이다. 그런데 그 천진한 어린 시절이 요즈음 들어 급속도로 짧아지고 있다. 어린이들 마저 너무나 일찍부터 자기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눈치채고, 거기에 맞춰 자신의 위치를 판정해서 처신하는 비릇을 익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어린이들은 가문의 체통을 유지하거나 그것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라도 했다는 듯이 숨막히는 생존경쟁 체제속으로 내리 몰린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의 무구한 눈동자와 얼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천국의 한조각이 세상에 내려온 듯한 감회에 젖다가도, 불과 몇년 뒤부터 그 아기가 헤쳐나가야 할 각박한 현실을 생각하면 안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대학입시-삶이 투쟁이라느니,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느니 하는 말들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계기가 오늘날에는 이것인 것 같다. 꼭두새벽에 잘 쓰이지 않는 눈을 비비며 학교에 가서 한 밤중에야 집에 돌아오는 어린 학생들은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하나 같이 쫓기는 자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준비한 시험에 합격하기가 얼마나 또 어려운가? 열명이면 거의 여덟명은 떨어지게 되어있다. 설사 어찌어찌 해서 행운의 두명 속에 낄 수 있었다 해도 경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취직 시험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또 취직을 하면 이제 마음을 편히 먹고 여유있게 살 수가 있는가? 지난 1월 4일에는 중년의 의사가 병원개업을 못했다 하여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로서의 길이 어떤 것인지가 어렵듯이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어려운 판문을 차례로 통과한 후 45세 정도라면 이제는, 좀 느긋한 마음으로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그 의사는 가까운 동료 의사나 가족중 다른 이들의 처지에 자기를 비교해서 심한 열등감을 느꼈고, 결국 그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휘두를 수 있는 고지를 향해서만 내리 달리는 삶의 길 끝에는, 이런 극적 사건이 아니라도 공허 밖에 기다릴 것이 없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 바바라 위드의 말대로, 한 개인이나 인류 전체나 간에 산상수훈-여덟가지 행복의 길-의 의미를 속깊이 깨닫는 일 만이 쓸쓸한 뒷맛을 남기지 않는 삶의 길목에 들어서는 일이다.

영똥한 하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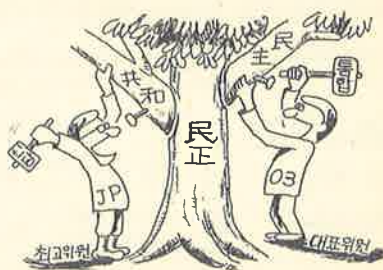
자유당과 민주당(제1공화국), 공화당과 신민당(제3·4공화국), 민정당과 민주당(제5공화국), 그리고 여소야대의 4당체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당정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여야 대립의 큰 줄거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고 있다. 보수 대연합의 정계개편이라는 혁명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당은 “국가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공동된 정책에 입각하여 국민을 조직 동원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영속적인 정치결사(政治結社)”를 뜻한다(동아세계 대백과사전).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권력을 얻고자 모인 정치조직이 바로 정당이다. 그런데 불과 2년1개월 전에 국가 권력을 얻고자 대권(정권)을 놓고 싸우던 4명의 후보들 가운데 셋이서 손을 잡겠다는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단일후보를 내세워 군사정치의 막을 내려주기를 소망했었다. 그러나 단일 후보의 실패로 여당이 다시 승리하자 국민들은 야당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야당을 적극 지원해 주어 여소야대의 정치판도를 만들어 주었다. 그 참뜻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제3공화국 이후에 등장했던 강력한 정권의 폐해가 얼마나 우리를 고달프게 했던가를 잘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 대연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는 국민의사를 무시한 쿠데타로 볼 수 밖에 없다.

사실 여소야대의 4당 구조는 둘로 집약되어야 한다. 군사문화에 뿌리를 둔 두 정당과 전통적인 두 야당이 각각 통합을 시도했어야 한다. 여럿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서로 뿌리가 다른 것들이 영똥한 목적으로 하나가 됨은 새로운 비극을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숲정이 산책



말라죽을텐데.....

감사합니다.

저희를 당신 대전에 불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에 한없는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부족함을 기도와 성원으로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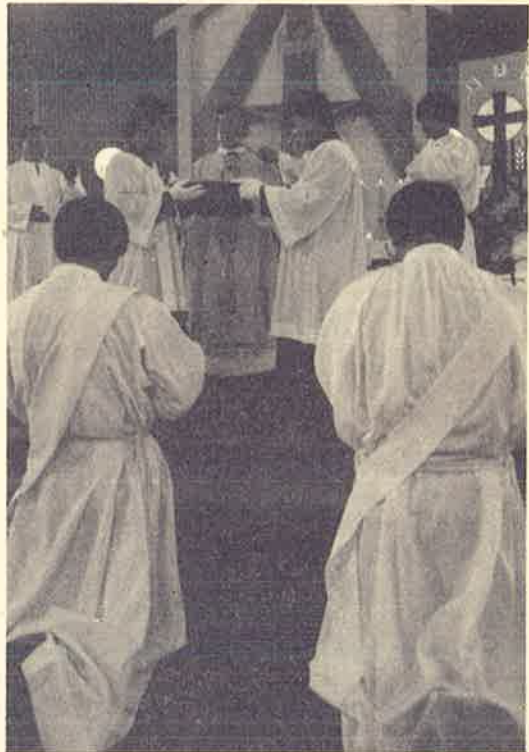
인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이 시대 모든 이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그 아픔에 함께하여 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저희 서품자들은 다짐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모든 분들의 기도를 삶에 담아, 미약한 정성과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가난한 마음이지만 저희의 한생애를 기꺼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저희가 참다운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모든 분들께 내리시기를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 드립니다.

1990. 1. 23

부제사제 서품자 일동



구라주 일 (救癩主日)

나병(癩病)은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불치의 병, 유전병으로 생각하여 나환자를 하늘의 형벌을 받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1973년 한센(G.A HanSen)에 의해 나균이 발견되고 1941년 설파제가 발명되어 나병에 대한 인식은 친구와 시대를 전기로 하여 변화하였다. 구약시대에는 나병을 죄가 형상화된 것으로 보거나 사탄이 들린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나병환자는 '부정한 자'라고 선언 당했고 세상과 격리된 촌락에서 모여 살아야 했다(레위13,1-14. 민수5,2).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구체적인 병고와 정신적 소외에 깊은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치유해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병자를 고쳐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마르6,7-13. 루가5,12-16). 교회의 구라사업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었고 사도들에 의해 이 치유의 사도직은 계승되어 내려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톨릭 구라사업은 '한국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전국 38개 정착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나병퇴치와 나환자를 위해 교회가 특별히 정한 주일(매년 1월 네째주일). 이날 미사에는 1961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2차 헌금이 실시되는데, 이 헌금은 신환(新患) 발견, 치료, 계몽, 연구교육, 후원회 육성, 정착지원, 환자복지 등에 쓰여진다.

유일칼라사진관

- 비디오 촬영 -

유영문 (가예[미노])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64-4 성당 앞

☎83-1914, 84-9140

양재 · 한복 · 홈패션

노라노 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리안드레아)

동부시장앞 · 민정당시앞

☎86-2715

90학년도 유치부 원아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효자웅변종합학원

제일애식상 뒤 ☎3-3284, 72-4417

삼천쌍용 아파트 앞

☎83-8331 ~ 2

새호남웅변종합학원

전주역 앞 ☎4-3948, 78-0034

원장 : 유 병 철 (베드로)

원감 : 박 경 애 (인젤라)

장 관 /

꽃과 벌의 사이

〈사제의 시작에 붙여〉

사제(司祭)는 직업이 아닙니다. 신자의 신앙의 중개적 열개구실을 하는 가톨릭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제의 위치가 어려운 자리라는 것이기도 하지요. 사제서품 때 하느님과 허원에서 모든 것을 꿰고 오직 순명 안에 사랑을 심고 영혼구원에 길잡이가 되는 하느님과 약속된 장차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제는 있어도 신부는 귀하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이는 사제생활에 있어 모범적 태도에 대한 지적이 아닐까요. 요사이의 세상의 변혁이 시간적으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런 틈새에 더욱 돋보이는 모습이 사제의 거룩함을 우리 평신도는 믿음으로 귀하게 여겨지면서 의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사제가 아닌 신부님의 위상에서 영신적 지주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서」라는 의미 속에 항상 신부님이 떠오르는 영적 존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평신도는 바라는 일이며, 또한 가정마다 영신적 지도신부를 갖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그 안에 사제는 신품을 지닙니다. 각박한 사회 안에 신자의 차원을 너머 하느님과의 대화는 평신도와 다른점이라 해도 될런지 모르지요. 그러므로 사제의 모습은 특수한 편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림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제는 사랑의 덩이가 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일치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사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신부님」이 되어 주기를 꽃과 벌 사이같은 아름다움이 일도록 하느님 안에 엮디어 기도도 대신합니다.

이 창목(요셉) / 효자우전성당

교 구 소 식

1. 본당 사무장, 사무원 연수회 : 2월14일(수) 오전10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2.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90년 2월1일(목) 10시~오후4시 덕진천주교회 미사도구, 묵주, 도 시작 준비
3. 가톨릭 방송안내 : CBS(기독교 방송)1314KHZ 「평화가 있는 이 밤에」, 매일 밤11시15-30분, 일요일 「평화가 있는 이밤에」는 주일미사에 참석치 못한 신자들을 위한 「주일강론」 목상 방송입니다. CBS 「방송사설」 월요일 오전8시. MBC 855KHZ (토) 「토요명상」 10시 25분-30분
4. 좋은 영화상영 「작은 친구들」 : 군산 : 29일 오전11시 장소-둔율동 천주교회 이리 : 29일 오후 3시 장소-창인동 천주교회
5. 프란치스코회 성소피정 : 대상-고등학생, 일반(미혼남성), 대학생 일시-고등학생('90.2.23-25), 일반·대학생('90.2.24-25) 오후2시까지 도착, 신청마감-'90.2.21(참가비 없음), 접수-서울시 중구 정동17(프란치스코회 피정 담당자 앞), 문의 : 762-1639, 753-4690
6.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임원 선출 명단 : 회장 : 김치덕(바오로), 부회장 : 한상갑(바오로), 김낙현(벨라도), 조용덕(라우렌시오), 최경숙(글라라), 상임위원 : 황의옥(파로), 신일균(아우구스티노), 김동필(보나벤투라), 윤기호(비오), 이환구(요셉), 김을수(요셉), 장현순(루가), 감사 : 안득수(마리오), 김은홍(미카엘), 사무국장 : 전자석(빈첸시오)

요십이 (860) 김병오



서신동성전신축기금마련

품목 : 원적외선 (Bioceramic) 요 · 방석

효능 : 고 · 저혈압 조절
피로회복 · 체질개선
신경통 · 루마치스 · 관절염
혈액순환

서신동 천주교회 사목회

☎ 4-2214, 73-0773

생그린순(荀) 화장품

전주지사 (시청앞)

주부사원모집

☎ 86-2714

강 가브리엘 (성운)

개업인사드립니다

신속과 친절로 보답하겠습니다

신서일가스

정 바오로 · 최 마리아

☎ 71-0287, 72-0878

251-3555, 71-0288

4-3375

大 入 總 合 班

개강 2 월 1 일

여러분의 의지와 한샘의 의지가
만날때 소망스런 미래를 약속합니다.

대입 전문 / 한샘학원 전주시청앞 74-7424

현대미용학원

김 금 순 (테레사)

☎ 86-2211

구 서중원

관인 명문속셈·영어학원

유치부·국교부·중등부·고등부

교육상담 83-8162

중화산동 평화주택내

원장 유로사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77-1713 수녀원 5-1714 주임신부 황 인 준
사무실 77-1711 유치원 77-1712 보좌신부 최 용 준
사목회장 황 의 옥

※ 오늘은 구라주일입니다. 2차헌금 있습니다.

1. 환영합니다 : 한병현(필립보) 보좌신부님 축하식-다음주일, 공식미사후
2. 문말지나 원장수녀님, 최말지나수녀님 영명축일 : 30일(화) 많은 기도바랍니다.
3. 초축성 : 주의봉헌축일-2월2일 10시30분 미사 * 제대초 미리 미리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구입-빈첸시오의 집
4. 모임 : 제대초 봉헌회-오늘 오후2시 모나카회-30일(화) 10시30분 명도회-1일(목) 오후8시 성체회-2일(금) 어머니미사후 교우회-2일(금) 오후6시 사목회-다음주일, 공식미사후
5. 유아세례 : 다음주일, 오후3시 7세이하 자녀들은 한어런이라도 빠짐없이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암

FAX 251-3850 사제관 251-1912 주임신부 왕 수 해
사무실 251-1911 사목회장 정 주 환
수녀원 251-1913

※ 오늘은 구라주일 : 특별헌금 있음

1.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 2월4일 공식미사 입교식
2. 사목회 : 차주 공식미사후
3. 주의봉헌축일 : 초봉헌하실분(수녀님께 신청)
4. 울드레아 임원개편 : 간사-라홍덕(아타나시오)
5. 성서개강 : 2월1일 오전10시 저녁8시
6. 금주전례 : 해설-나인구 독서①이훈식 ②김 숙 봉헌-신길환부부 복사-윤기환 권홍주
7. 차주전례 : 해설-심상기 독서①라홍덕 ②최우남 봉헌-정주환부부 복사-정분영 강남수
8. 미사안내 : 사랑하오신 모친 차주-모든성인의 모후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 태 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김 낙 현
수 · 유 72-1222

1. 오늘은 22차 구라주일입니다 : 나환우들을 위해 2차헌금이 있습니다.
2. 죄보노사 수녀님 피정 : 29일~2월5일 많은 기도 바랍니다.
3. 1월 구역장 · 반장 모임 : 31일 오후2시
4. 1월 전례분과 모임 : 31일 오후 저녁미사후
5. 2월 푸른군대 피정 : 2월1일 오전10시부터
6. 진복유치원 운전기사 모집 : 자세한 사항은 유치원으로
7. 금주본당청소 : 치명자의 모후Pr-2월3일 오후2시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 순 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 영 철
수녀원 77-4212

1. 초봉헌 : 2월2일 주의봉헌축일(미사시간-오전10시) 제대초, 가정초 봉헌바랍니다.(가격-1개당 1,000원)
2. 성시간 : 2일 오후8시30분
3. 모임 : 오늘 공식미사후-애령회, 사랑의 자모회 2일-제대회 3일-사목회 차주공식미사후-꾸리아
4. 구역미사(30일) : 동산7구역 5. 나환진치(31일) : 동산3
5. 예비자 입교식 : 2월8일 저녁미사후 많은 인도 바랍니다.
6. 금주청소 : 자비의 모후Pr. 차주-평화의 모후Pr
7. 금주전례 : 해설-손택구 독서①이의준 ②한병자
8. 차주전례 :

*서신동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 성 팔
사무실 4-2214 사목회장 박 병 열

1. 벽돌헌금 및 폐품수집 : 우리들의 정성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룩 것입니다.
2. 예비자 모집(2월반) : 2월11일 공식미사후-수녀님 지도
3. 가계에 밀린 의상값 : 1월중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의봉헌 축일 : 초 축성 각가정 초봉헌 바랍니다.(2월2일)
5. 주일학교 개강 : 2월4일부터 오후2시-교리 오후3시-미사
6. 종교학생 교리 : 2월부터 학생미사후

7. 북전주 지구 주일학교 졸업피정 : 1월29일~30일 장소-무주 자연학습원 참가비4,000원
8. 성전 신축을 위한 바인 세레믹 원적외선 요 판매-사목회
9. 모임 : 차주 공식미사후-사목회 성모회
- 금주전례 : 해설-이철수 독서①오정중 ②신덕순
- 차주전례 : 해설-김옥기 독서①이영수 ②김조심

*송천동

사제관 74-8873 주임신부 김 태 윤
사무실 74-1004 사목회장 김 인 철
수녀원 4-1142

1. 오늘의 모임 : 요새회, 대건회-공식미사후
2. 사목회 상임위원회 : 30일 저녁8시 분과회의-4일 공식미사후
3. 2월2일 주의봉헌축일 : 제대초 봉헌 바랍니다.
4. 성심부녀회 : 2월2일 오전11시
5. 제단제는 사업계획서와 회원 주소록을 사무실에 제출바람
6. 오늘은 구라주일 : 나환자를 위한 2차헌금
7. 교우회 아작 신일 안하신분 속히 신일 바랍니다.
8. 매월 마지막주일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9. 금주본당청소 : 12구역 3일 오전11시
10. 금주전례 : 해설-이진창 독서, 복사-이진호 박병래 기도-바다의 별Pr. 봉헌-김봉수 윤숙한 부부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 궁 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김 경 주
수녀원 3-9567

1. 오늘 : 구라주일(나환자를 위한 2차헌금 실시)
2. 초등부 교리교사 임원개편 : 회장-장숙경 부회장-김미진
3. 북전주지구 초등부 6년 졸업피정 : 29일~30일(무주자연학습원)
4. 구역장회의 : 3일 오전10시 * 구역장, 부구역장, 반장님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이단 구역장회의에 꼭 참석합니다.
5. 주의봉헌 축일(2월2일) : 초축성준비(일년간 성당제단에서 사용될 초헌헌과 가정에서 사용할 초 신정하세요. 초1개-1,200원)
6. 청소(2월) : 화-중거자의 모후 토-파티마의 모후
7. 미사안내(2월) : 천상의 모후
8. 미사해설(2월) : 정주복
9. 금주전례 : ①정주복 허옥순 ②정진술 김영숙
10. 차주전례 : ①나병열 조현자 ②차환옥 송옥례

*인후동

사제관 86-8876 주임신부 서 용 복
수녀원 86-8875 사목회장 정 수 일
사무실 86-5022

1. 구리아 월례회의 : 오늘 오후2시 강당에서
2. 구역장님 월례회의 : 1일(목) 어머니미사후
3. 주의봉헌 축일(2월2일), 제대초봉헌(2월4일) : 공식미사중 신청-수녀님께
4. 예비자 입교 환영식 : 30일(화) 저녁미사후 많은 인도 바랍니다.
5. 오늘은 구라주일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2차헌금이 실시 됩니다.
6. 사목회 월례회의 : 2월4일 공식미사후
7. 초등부 6학년 졸업피정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월29일~30일(무주, 자연학습원)
8. 수조, 전화번호 변경되신 가정은 사무실로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 주일금(봉헌금)은 정성을 다하여 봉헌 합니다.
10. 어린이 복사단 모임 : 매주 토요일 오후4시 꼭 참석 하세요.
11. 미사때 매일 미사책과 성가집은 꼭 지참합니다.
12. 미사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호성동

사제관 78-0075 주임신부 정 양 현
사무실 78-1140 사목회장 박 대 규

- ※ 오늘은 구라주일입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나환자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과 정성을 모아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합니다.
1. 2월2일은 주의 봉헌 축일입니다. 제대초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초축성-4일 공식미사때
 2. 구역장 임명 : 1구역-김영자 2구역-손순임 3구역-김순자 4구역-차봉선 5구역-최순덕 6구역-박경자 7구역-김순덕 8구역-송성희 9구역-조계순 10구역-김유순 11구역-유은순 12구역-한인희 13구역-이은숙 14구역-한귀자 15구역-김병수 16구역-김용순 17구역-조효형 18구역-이정숙 19구역-김선순 20구역-김정희 간중리구역-김봉자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역장님은 사무실에서 구역을 확인하십시오.
 3. 사목회의 : 다음주 공식미사후